

MOV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러브 토크〉와 〈도쿄 데카당스〉에서의
소통 부재의 삶

조혜정 | 영화평론가,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고립의 섬인 현대의 대도시에서 유명처럼 부유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외로움이 채워처럼 묻어난다. 외로움에 찌든 사람들 그러나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바삭한 메마름이 전해지는 영화, 이윤기 감독의 〈러브 토크〉와 무라카미 류 감독의 〈도쿄 데카당스〉. 현대인들의 고독감과 공허감을 영화를 통해 들여다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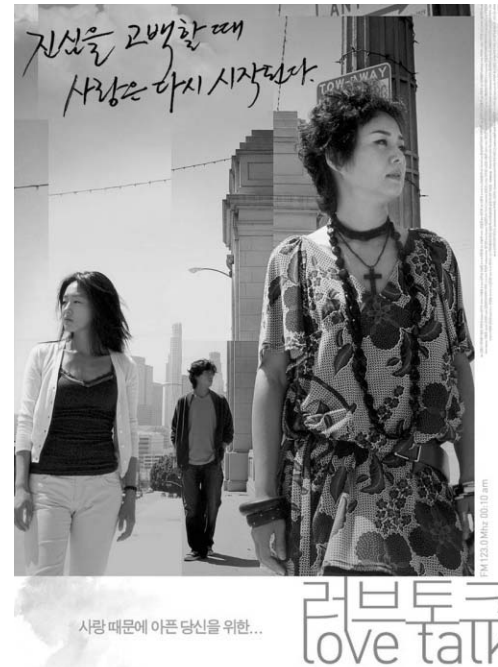
정현중 시인의 〈섬〉은 단순한 쇠구 속에 서걱거리는 슬픔과 참 아련한 그리움을 함축하고 있다. '섬'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섬'을 통하여 소통을 향한 몸짓을 발견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섬'마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고립의 섬, 유폐의 섬에는 외로움에 찌든 사람들 그러나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 그런 이들의 바삭한 메마름이 전해지는 영화가 있다. 이윤기 감독의 〈러브 토크〉와 무라카미 류 감독의 〈도쿄 데카당스〉이다.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두 편의 영화는 공교롭게도 LA와 도쿄라는 현대의 대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거대 도시를 유명처럼 부유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외로움이 채워처럼 묻어난다.

〈러브 토크〉- 사람, 그 외로움에 대하여

이 영화는 결국 소통에 관한 작품이다. LA라는, 한국인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국의 도시에서 스치고 포개지면서 만들어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면서, 각각의 섬에 고립되어 있는 이들의 외로움에 관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인물들은 다른 이들과 교감하지 못한다. 씨니(배종옥)는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일에 전념할 뿐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숍의 청원경찰을 밀어내고 한 집에서 기거하게 된 지식(박희순)에게도 잠시 다가서지만 마음을 열지 못한다. 영신(박진희)은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당당한 여성이지만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망설임으로 서성인다. 지식은 사랑을 놓아버리고 이국의 클럽에서 배회하며 낯선 도시의 공허함에 몸을 맡긴다.



이윤기 감독의 〈러브 토크〉

〈러브 토크〉의 인물들은 마치 식물과 같다. 그들은 뭔가에 닿을 때마다 움츠러드는 미모사를 연상시킨다. 이윤기 감독은 전작 〈여자, 정혜〉에서도 상처 받고 움츠러든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었고, 김지수의 더 없는 호연으로 정혜의 '식물성'은 살아났다. 〈러브 토크〉의 인물들 역시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부로 찾아드는 이들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러나 〈러브 토크〉는 〈여자, 정혜〉보다 훨씬 대중적 화법을 동원한다. 주요 인물의 수만큼이나 뻗어 나가는 관계의 가지도 늘어난다. 〈여자, 정혜〉에 비해 수다스러워진 이 영화에는 도시라는 공간의 공허함과 난폭함이 자리 잡는다.

〈도쿄 데카당스〉- 섹스의 판타지에 매달리는 고독한 군상 도시의 공허함과 난폭함이 〈도쿄 데카당스〉에서는 좀

더 기이한 형태로 드러난다. 변태적인 성적 판타지를 제공하는 도쿄의 SM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인물(니카이도 미호)을 중심으로 역시 소통하지 못한 채 각자의 외로움에 갇혀 있는 인물군상들을 펼쳐 보인다. 이 영화에는 여자를 묶어놓고 SM(새도매저키즘)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며 여자에게 마약을 주사하는 남자, 가죽 코르셋에 하이힐을 신은 채 기묘한 자세로 호텔 방의 큰 창문에 매달려 네온으로 빛나는 도시의 밤풍경을 바라보게 하거나 갖가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시키거나 자신과 정부의 섹스를 지켜보게 하는 야쿠자 두목이 등장한다. 또 자기를 개구리 왕자라고 부르며 절정에 오르기 위해 목을 졸라달라고 부탁하는 남자, 후지산 근처 숲에서 강간당하고 죽은 여자의 역할을 해달라며 돈을 들이대는 남자, 여자 둘과의 트리플 플레이를 즐기며 개처럼 묶여서 기어 다니고 채찍으로 맞으며 피학을 즐기는 남자도 등장한다. 여기에 고급 콜걸로 가죽 코르셋을 입고 매저키스트 손님에게 채찍을 휘두르지만 자신의 현실을 지우고 싶어하는 여자(아마노 사요코)도 있다.

〈도쿄 데카당스〉의 인물들은 도시의 곳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욕망에 다가섬으로써 현대 대도시에서의 그들의 공허하고 외로움에 찌든 삶을 체험케 한다. 사람들은 뒤틀리고 변태적인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증명을 하려는 듯 보인다. 그들은 사랑을 꿈꾸면서 돈을 지불하고 성을, 관계가 아니라 성과 관련된 행위를 구매한다. 그들은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모르는 사람들이다. 관계를 통해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감을 위해 돈을 지불한다. 그 만족감의 실체는 실체가 아니라 판타지이다. 그래서 시체를 범하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섹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길들여 달라며 상대 여자의 오줌을 마시며 갖은 모욕을 청하던 매저키스트는 호텔



무라카미 류 감독의 <도쿄 데카당스>

을 나서면서 SM 플레이를 하던 상대 여성에게 각뚝이 인사하고 말쑥한 모습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간다.

<도쿄 데카당스>의 여성 주인공 아이(니카이도 미호)는 <러브 토크>의 인물들처럼 '식물적' 이거나, 상처를 절제된 무관심이나 무력감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생기로 표현한다. 그는 아이 같은 순진함으로 변태적인 성행위와 외설스러운 성적 표현의 자극성을 중화시켜 버린다. 여기에 그의 아픔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외로움이 상승작용을 하며 <도쿄 데카당스>를 쓸쓸한 영화로 만들어 버린다.

'미니멀한' 세계에서 벗어나려는가?

<러브 토크>는 쓸쓸하게 떠도는 사람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소통의 다리'를 놓아본다.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러브 토크' (Love Talk)라는 이름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다. 사랑에 관한 심야 상담 프로그램인 '러브 토크'에서는 다양한 사연들이 고백과 상담의 형태로 전파를 탄다. 그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마음을 열고 은밀한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위안을 받고 조금씩 소통하는 법을 배워간다. 씨니는 프로그램의 헬렌 정(영신; 박진희)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열어간다. 헬렌 정 영신 역시 씨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외면하고 직시하기를 두려워했던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게 된다. 두 사람이 마주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끝까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게 된다. 어디선가 만났을 것 같고 웬지 아는 것 같은 느낌 - 그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관심이고 자신이 섬처럼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한다는 느낌의 시작인 셈이다. 씨니는 그동안 담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며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

이윤기는 <여자, 정혜>에서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조심스럽게 펼쳐내었다. 너무 상처받기 쉽고 고통으로 짓무를 것 같은 여자 정혜에게 어느 날 새로운 인연의 끈을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을 때, 나는 이 감독의 섬세함에 가슴이 저릿했다. 남성 감독이지만 여느 여성감독 못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섬세한 감수성의 남성 감독을 발견하는 것은 꽤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윤기는 <러브 토크>에서도 그 기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니멀한' 그의(그의 인물의) 세계가 지닌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는 징후는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의 영화의 힘은 '단조로움의 역동성'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브 토크>의 인물들은 마치 식물과 같다. 그들은 뭔가에 닿을 때마다 움츠러드는 미모사를 연상시킨다.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부로 잦아드는 이들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러나 <러브 토크>는 <여자, 정혜>보다 훨씬 대중적 화법을 동원한다.

찰나의 위로 뒤의 더 큰 외로움

<도쿄 데카당스>는 현대 일본 문단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두 '무라카미' 중 한 사람인 무라카미 류의 소설 『토파즈』를 원작으로 하여 1992년에 만들어진 영화이다. 이 영화는 일본사회 속 개인의 고독과 공허감을 SM 섹스를 끌어들이어 표현한다. 그는 '근대화가 끝난 일본을 뒤덮고 있는 고독감'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언어와 문맥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며 근대화 이후 일본 젊은이들의 의식은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한 폐쇄감, 사회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싶은 절실한 충동이 교차하면서 허공을 맴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쿄 데카당스>에서는 변태적인 섹스에 매달리고 스스로 굴욕과 수모를 자청하는 매저키스트와 상대를 굴복시킴으로써 쾌감을 얻는 새디스트들을 현대 일본의 초상으로 상징화 시킨다. 영화 대사 중에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에 대한 비판적 언사와 그 비루함이 사람들을 매저키스트로 만든다는 언급도 있다("돈이 많은 건 일본이예요. 하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돈이라 사람들은 불안해서 마조히스트가 되죠"). 이를 통해 무라카미는 자신이 선택한 변태적인 섹스 또는 SM 플레이가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임을 암시한다.

<도쿄 데카당스>의 인물들의 고독감과 공허감에는 <러브 토크>에서보다 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끼어든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희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SM 섹스숍에서 일하는 주인공 아이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찾아가지만 남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가택침입과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연행될 위기를 겪는다. 이미 그의 사랑은 변하고 무의미해진 시점에서 아이는 사랑하는 이와 실제적 접촉이 아니라 판타지 속에 머물다 그곳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바이브레이터 등 섹스도구를 넣은 큰 가방을 들고 고객을 찾아간다.

<도쿄 데카당스>는 사라져버린 또는 변해버린 어제와 여전히 남은 오늘을 통해서 선부른 희망으로 봉합하는 것을 포기한다.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로 변화시키기에는 도쿄라는 도시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현대라는 시간은 너무 크고 버겁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위로해줄 찰나의 자극에 몸을 맡길 것이고 그것은 더 큰 외로움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도쿄 데카당스>가 비정상적이고 높은 수위의 섹스 행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선정적이거나 에로틱한 자극이 아니라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